"그랜드 챔피온"

– 평택 홀스타인 품평회을 앞두고

산외목장 / 백승희

아침 일찍 착유를 끝내고 대회장인 안중 우시장으로 출발했다. 우리 목장에서 30분 거리인 대회장을 도착해보니 깨끗이 잘 정리 되어 있었고 출품우 계류장에도 그늘막과 [illegible] 다. 작년 대회에는 무더운 날씨에 [illegible] 없어서 출품우들이 더위에 아주 고생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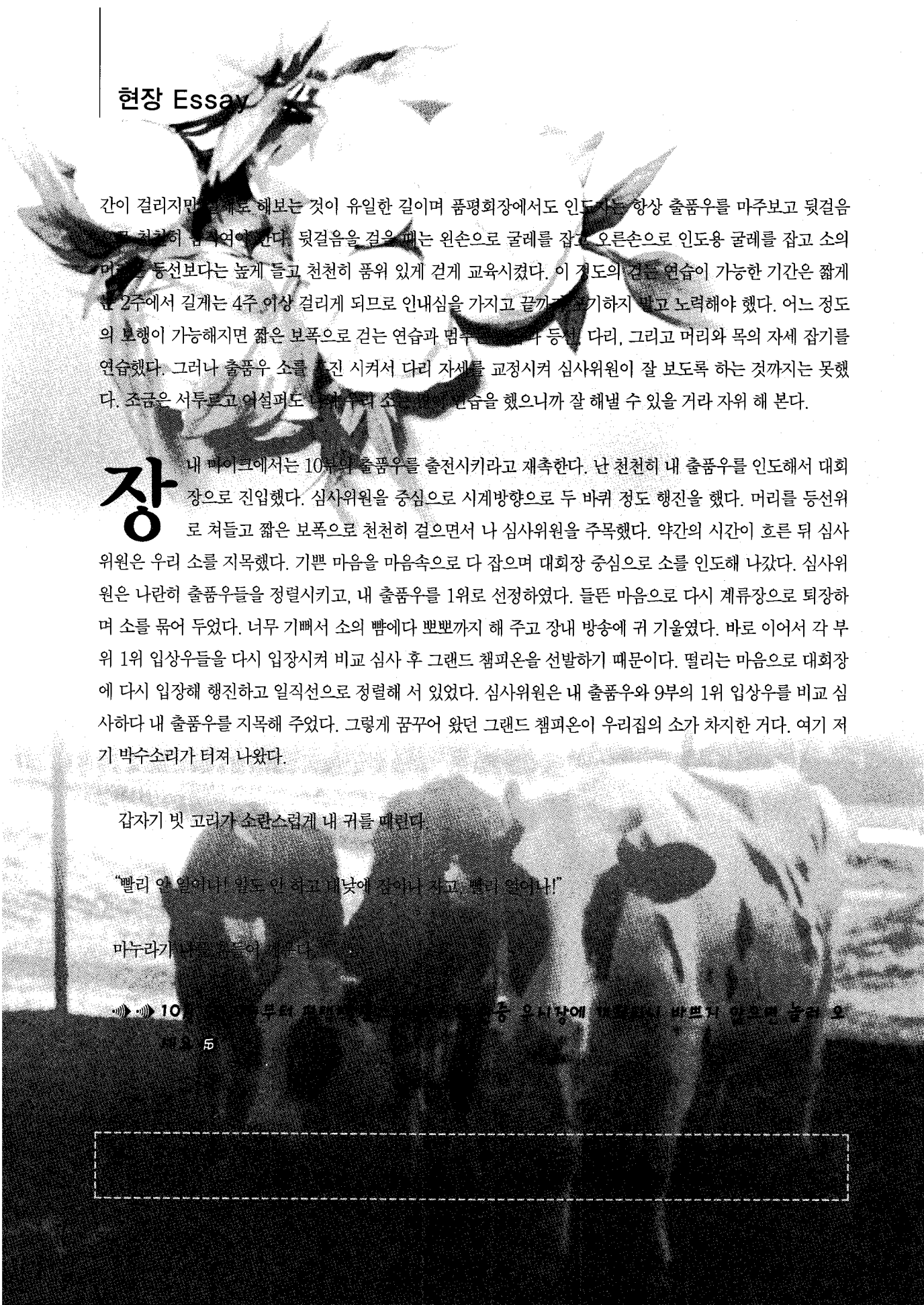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 소를 묶어 놓고 [illegible] 도 하고 그들의 출품우들을 보니 다 우리 보다 훨씬 [illegible] 생각하며 우리 소에게 다시 다가가 [illegible] 물을 [illegible] 뿌려주고 부드러운 솔로 쓸어 주며 [illegible] 수분을 제거한 후 [illegible]

작하면 마른 수건으로 등에서부터 마지막 아랫배까지 수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꼬리 부위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입 주변의 지저분한 것도 처치해 준다.

이 정도의 일차 손질이 끝나면 등선 털을 빗으로 빗으면서 강력 스프레이로 세워 주는 작업을 한다.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등뼈가 약간 주저앉은 부분이 있으면 털을 덜 깎아서 등선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 등선이 일직선으로 곱게 뻗으면 일단 품평회 심사 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다음 작업은 꼬리털 세우기다. 먼저 꼬리의 수분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꼬리를 깨끗이 빗질하고 꼬리를 거꾸로 잡고 다시 빗을 시작한다. 어느 정도 빗질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강력 스프레이로 뿌린다. 이때 주의 할 것은 거꾸로 잡고 잇는 꼬리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. 왜냐하면 잘 굳지 않는 상태에서 꼬리를 내리면 아주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. 꼬리를 잡은 상태에서 완전 굳을 때까지 빗질과 스프레이를 뿌려 주는 것은 몇 번 반복해야 한다. 그렇게 한다면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대회장에서 보행 시 다른 우순이 보다 한결 주목받게 된다.

이런 와중에 품평회가 시작되고 제 1부인 어린 송아지들이 하나 둘씩 출전하기 시작했다. 마지막으로 꼬리 단장을 끝내고 관람석에 앉아 1부에 출품된 어린 송아지들을 구경했다. 모든 출전우들이 깨끗이 다듬어져 있었으나 다만 순치과정이 덜 진행된 출품우의 한두 마리가 보였다. 순치란 간단히 말해 사람의 인도에 잘 따라주게 출품우를 길들이는 작업을 말한다. 최소한 4~6주전부터 시작하는 데 쉽게 되지 않으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.

우리 집 출품우의 순치과정이 떠오른다. 처음엔 나일론 굴레로 묶고 그 굴레에 익숙해지도록 매일 1~2 시간 정도, 4~5일 정도 반복해서 묶어 두었다. 굴레를 씌우는 데 익숙해지면 묶여진 상태에서 신선한 사료와 풍부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누울 수 있게 건조하고 깨끗한 누울 장소를 만들어 준다. 그 후에 부드러운 솔로 털을 쓸어 주면 윤기 있고 빛나는 털을 유지 할 수 있으며, 그 소와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. 이 정도 단계가 되면 걷는 연습을 시작하는데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잘 은 연습이 필요하다.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시



간이 걸리지만 [illegible]로 해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품평회장에서도 인도자는 항상 출품우를 마주보고 뒷걸음[illegible]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. 뒷걸음을 걸을 때는 왼손으로 굴레를 잡고 오른손으로 인도용 굴레를 잡고 소의 머리를 등선보다는 높게 들고 천천히 품위 있게 걷게 교육시켰다. 이 정도의 걷는 연습이 가능한 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 이상 걸리게 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했다. 어느 정도의 보행이 가능해지면 짧은 보폭으로 걷는 연습과 멈추[illegible]나 등선, 다리, 그리고 머리와 목의 자세 잡기를 연습했다. 그러나 출품우 소를 훈진 시켜서 다리 자세를 교정시켜 심사위원이 잘 보도록 하는 것까지는 못했다. 조금은 서투르고 어설퍼도 나와 우리 소는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위 해 본다.

장내 마이크에서는 10부의 출품우를 출전시키라고 재촉한다. 난 천천히 내 출품우를 인도해서 대회장으로 진입했다.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정도 행진을 했다. 머리를 등선위로 쳐들고 짧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나 심사위원을 주목했다.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심사위원은 우리 소를 지목했다. 기쁜 마음을 마음속으로 다 잡으며 대회장 중심으로 소를 인도해 나갔다. 심사위원은 나란히 출품우들을 정렬시키고, 내 출품우를 1위로 선정하였다. 들뜬 마음으로 다시 계류장으로 퇴장하며 소를 묶어 두었다. 너무 기뻐서 소의 뺨에다 뽀뽀까지 해 주고 장내 방송에 귀 기울였다. 바로 이어서 각 부위 1위 입상우들을 다시 입장시켜 비교 심사 후 그랜드 챔피온을 선발하기 때문이다.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장에 다시 입장해 행진하고 일직선으로 정렬해 서 있었다. 심사위원은 내 출품우와 9부의 1위 입상우를 비교 심사하다 내 출품우를 지목해 주었다. 그렇게 꿈꾸어 왔던 그랜드 챔피온이 우리집의 소가 차지한 거다. 여기 저기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.

갑자기 빗 고리가 소란스럽게 내 귀를 때린다.

"빨리 안 일어나! 일도 안 하고 대낮에 잠이나 자고, 빨리 일어나!"

마누라가 나를 흔들어 깨운다.

10[illegible] 무터 [illegible] 중 우시장에 [illegible] 바쁘지 않으면 놀러 오세요. 5